| 겨레의 창 |

남북 언어 통합, 탈북민의 몫?

_ 한정미 / 통일부 하나원 우리말상담실

하나원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수료식이 진행된다. 입소 후 3개월만의 수료다. 벅참, 슬픔, 긴장, 두려움이 섞인다. 신분증이 생긴다는 벅참, 탈북여정을 같이 한 '우리 사람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슬픔, 낯선 땅에 발을 딛어야만 한다는 긴장, 잘 살아낼 지에 대한 두려움.

이런 저런 복잡한 심정으로 며칠 동안 불면의 밤을 보냈는데, 북한관련 좋지 않은 뉴스라도 있으면 수료를 앞둔 북한이탈주민들의 얼굴은 수심이 더 짙어진다. 탄도 미사일 발사와 북한이탈주민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북한이탈주민들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듯 움츠러든다. 사실 그들도 피해자인데 말이다.

지난 달, 국립국어원은 '2016년 남북 언어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국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접촉국민, 남북관계 전문가 등 총 2,3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7명이 남한에서 북한 말씨를 사용하는 것이 본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4명이 말씨 때문에 남한에서 무시나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답했다.

무시나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라고도 할 수 있으니 청자 혹은 제 3자인 남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일반국민 10명 중 5명, 접촉국민 10명 중 8명이 북한이탈주민들이 언어적인 문제로 차별이나 무시를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점에 동의를 했다. 전문가의 경우는 조사대상 50명 중 49명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서 북한 말씨를 쓰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으며, 구직활동이나 이웃과의 교류 등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탈주민 접촉국민, 남북관계 전문가 등 북한이탈주민 가까이에 있어 그들의 생활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많을수록 언어 때문에 겪는 그들의 불편함에 크게 동감하고 있는 것이다.

경상도, 전라도 등 다른 방언 사용자들은 본인의 말씨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른 방언 사용자들은 말씨로 인해 무시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한다. 10명 중 9명이 그렇게 응답했다. 오히려 10명 중 5명은 방언 사용자들이 편하고 친근하다고 응답했다. 남한의 다른 방언은 무시나 차별을 받지 않는데 북한 방언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북한, 북한핵개발, 북한이탈주민, 북한말을 동일시 한 결과가 아닐까? 북한 당국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북한이탈주민, 북한말에 오버랩 된 것은 아닐까? 하나원을 수료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의 대남공세가 강화될수록 수심이 짙어지고,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은 기우가 아니라는 말인가?

남한 사회에 정착한 지 한 달 가량 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했다. 말없이 있으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가격을 묻는 한 마디, 길을 묻는 한 마디, 휴대전화에 답하는 한 마디에 모든 시선이 본인을 향한다고 한다. 적대감까지는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왠지 구경거리가 된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느껴진다고 한다. 동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묘하다고 한다. 중국에서 말 때문에 사는 것이 힘들었기에 남한 땅에 들어서면 적어도 말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말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언어는 남과 북이 한민족, 한 민족임을 확인시켜 주는 징표와 같은 것인데 '같은 조선말인데도 왜 이리 다를까' 안타깝다고 한다. 외래어는 물론 여당, 귀경, 출산, 음치, 유기농, 정찰제, 갱년기 등 초등학생도 아는 어휘를 공부해야 하고, 땅의 분단·체제 분단·환경 분단이 가져다 준 남과 북의 언어문화와 언어감성 차이도 익히고 느끼고 체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묘한 시선을 받지 않기 위해 '남자들도 살랑살랑' 말하는 남한식 발음, 남한식 억양으로 교정해야 한다. 남한 사람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 남한 말을 공부해야 하는데, 소통보다도 무시·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북한에서 왔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남한 말을 학습해야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하나원에서 3개월 동안의 언어적응을 위한 교육과 반복 학습을 통해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사회에 진출한다. 말 그대로 최소한의 준비다. 완벽하게 구사할 형편은 절대 되지 못한다. 한국어가 모국어라고 하더라도 습관으로 굳어진 발화특성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이 사회 진출의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기에 북한이탈주민들 10명 중 8명이 남한 사람처럼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제의 원인은 오직, 북한이탈주민에게만 있는 것처럼 말이다.

북한이탈주민이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남한 사회에 편입을 했다는 이유로 남북 언어차이를 고스란히 북한이탈주민이 감내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소수인 북한이탈주민이 다수인 남한 주민이 향유하는 남한식 언어문화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일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 언어 통합을 위한 학습의 부담, 시선의 부담을 북한이탈주민에게만 넘길 수는 없지 않은가.

남북 언어 통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이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 오해 없이 원활한 대화를 하는 것이다.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이해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 인식의 전환이다. 경상도, 전라도 방언과 북한 방언이 다르지 않다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먼 길 돌고 돌아 우리의 이웃으로 다가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말씨 때문에 또 한 번 묘한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무시, 차별의 시선을 거두어들이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배고파서 못 살고, 중국에서는 신분증이 없어서 못 살고, 한국에서는 몰라서 못 살겠다고 한다. 학습의 부담, 터득의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있는 우리의 이웃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이상 무시와 차별의 불이익까지 감내하지 않도록 말이다.

남한 출신, 북한 출신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고향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날을 기대해 본다.

| 한정미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북한 문예정책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장 확인 없이 북한을 논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있던 중 남한에서 가장 북한스러움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원을 찾았고, 2005년부터 이 곳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문화적응을 돕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 바탕을 둔 북한 언어, 북한이탈주민 언어·언어 적응 교육 방법론, 북한어 번역 등 남북 언어 통합에 관한 강연활동과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다.

Copyright©2013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

| 우리말 보물찾기 |

부자가 되는 기술

_ 이상배 / 동화작가

돈? 돈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물의 가치를 나타내며, 상품의 교환을 매개하고, 재산 축적의 대상으로도 사용하는 물건'으로 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경제적인 동물이고, 그런 만큼 돈을 벌어야 하고, 써야 하고, 돈 때문에 웃고 울고, 돈에 주인이 되기도 하고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돈만 있으면 개도 멍첨지라'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천한 사람도 돈만 있으면 남들이 귀하게 대접해 줌을 이르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돈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며, 동화에서 돈에 관련한 우리말을 살펴봅니다.

한 가난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주머니는 늘 **무일푼**이었습니다.

젊은이는 돈을 벌어보려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해보았지만 돈을 벌기는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습니다.

"왜 나는 돈이 붙지 않을까?"

젊은이는 돈이 많은 부자를 부러워하며 만날 **헛꿈**을 꾸었습니다. **돈벼락**을 맞아 **돈더미**에 앉아 뒹구는 꿈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좋은 수가 없을까?"

젊은이는 일은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궁리만 했습니다. 사실 젊은이는 여태껏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어느 것 하나도 끈기 있게 해낸 적이 없었습니다. 젊은이답지 않은 **허튼뱅이**였습니다.

어느 곳에 큰 부자로 소문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예, 부자 어른,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기술이라고? 나는 기술자가 아니네."

"부자 어른은 돈을 버는 기술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십시오."

젊은이는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허허, 재산을 **까올리기**라도 했는가?"

"아닙니다. 재산이라곤 늘 **잔돈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머니밑천**도 없단 말인가?"

"예, 지금은 **단돈** 한 닢도 없습니다."

"흠, 젊은이가 꼭 원한다면 가르쳐 주겠네."

부자는 젊은이를 데리고 넓은 연못가로 갔습니다.

"저기 버드나무가 있는 곳으로 가게."

버드나무는 비탈진 연못 언덕에 있었습니다.

"연못 쪽으로 뻗은 가지로 올라가게."

"예, 어르신, 돈을 버는 비결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군요."

젊은이는 호기 있게 버드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가지에 매달리게."

젊은이는 부자의 말대로 연못 쪽으로 뻗은 가지에 두 팔을 벌려 매달렸습니다.

"내가 젊은이에게 가르쳐줄 것은 두 가지네."

"예, 그게 어떤 기술입니까?"

"이제 곧 알게 될 것이네."

젊은이는 기대에 찬 눈으로 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젊은이를 쳐다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는 동안 젊은이의 팔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부자 어른, 빨리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한 손을 놓게."

"예? 그러면 더 힘들 텐데요."

젊은이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이 깊어 보였습니다. 한 손을 놓으면 금방 물속으로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두렵고 무서웠지만, 기술을 배울 욕심으로 한쪽 손을 놓았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보게. 돈을 벌려면 **돈재미**도 알고 **돈맛**도 알아야하지. **군돈질** 하지 말고, 모름지기 **여투어** 두는 것이 부자가 되는 걸세. 내 말 **새겨듣고** 있는가?"

"예?"

젊은이의 매달린 한 손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나무 가지를 놓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힘이 빠져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무사히 나무에서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젊은이는 나무 가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지금 젊은이 처지가 어떠한가. 견딜만한가?"

젊은이는 얼굴은 **죽을상**이 되어 대답을 못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을 가르쳐 주겠네. 돈을 버는 일은 그렇게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걸세. 이제 마저 한 손도 놓게."

"……."

"두 번째 기술을 가르쳐 주겠네. 바로 놓지 않는 걸세. 돈을 벌면 손에서 놓으면 안 되네. 지금처럼 말이야. 이 두 가지가 부자가 되는 기술일세."

세상에 땀 흘리지 않고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공짜도 없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면 그만큼 대가도 커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낭비하면 금방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힘들여 번 돈은 보람 있고 값지게 써야 하겠지요.

***동화에 나오는 우리말 뜻**

무일푼: 돈이 한 푼도 없음.
풀칠: 겨우 끼니를 이어 가는 일.
헛꿈: 실현할 수 없는 것을 이루어 보려고 꾀하거나 희망을 거는 생각.
돈벼락: 갑자기 한꺼번에 생긴 많은 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돈더미: 돈을 쌓아 놓은 더미라는 뜻으로, 매우 많은 돈을 이르는 말.
허튼뱅이: 허랑하고 실속이 없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까올리다: 재산이나 돈 따위를 모조리 써 없애다.
잔돈푼: 얼마 안 되는 돈.
주머니밑천: 주머니에 늘 넣어 두고, 좀처럼 쓰지 아니하는 약간의 돈.
단돈: 돈의 액수 앞에 붙어 아주 적은 돈임을 강조하여 이르는 말.
돈재미: 돈을 벌거나 쓰는 데서 느끼는 재미.
돈맛: 돈을 쓰거나 벌거나 모으는 재미.
군돈질: 안 써도 좋을 데에 쓸데없이 돈을 쓰는 짓.
여투다: 돈이나 물건을 아껴 쓰고 나머지를 모아 두다.
새겨듣다: 말하고자 하는 본뜻을 잘 헤아려 듣다.
죽을상: 거의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는 표정.

| 이상배 |

동화작가.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도서출판 좋은꿈 대표이다. 대한민국문학상, 윤석중문학상, 방정환문학상, 한국동화문학상 등을 수상하였으며, 저서로는 『책읽는 도깨비』, 『책귀신 세종대왕』, 『부엌새 아저씨』, 『우리말 동화』, 『우리말 바루기』 등이 있다.

Copyright©2013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
추천하기

| 남녘말 북녘말 |

남에서는 '널따란 널빤지를 줍고' 북에서는 '넓다란 널판지를 줏는다'

_ 이대성 / 국립국어원

표준어 '널따랗다'에 대응하는 문화어는 '넓다랗다'이다. '널빤지'를 북에서는 '널판지'라 한다. '줍다'에 대응하는 북녘말은 '줏다'이다. 이처럼 남북의 규범어가 서로 다른 사례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알아볼까 한다.

'높다랗다, 짤따랗다' 등에 쓰인 '-다랗다/-따랗다'는 '그 정도가 꽤 뚜렷함'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그런데 이 접미사를 적는 방법에서 남북이 차이가 있다. 남에서는 어간의 받침이 본래 'ㄻ'인 경우에는 '-따랗다'를 쓰고, 그 밖의 경우에는 '-다랗다'를 쓴다.[1] 한글맞춤법에 따르면 자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는 경우에는 '굵다랗다(굵-+-다랗다)'처럼 용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겹받침의 끝소리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널따랗다(넓-+-따랗다)'처럼 소리대로 적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쑥하다'도 '맑다'와 관련된 말이지만 겹받침의 끝소리인 'ㄱ'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맑숙하다'로 적지 않고 '말쑥하다'로 적는 것이다. 반면에, 북에서는 '-다랗-'만 쓴다. '굵다랗다'로 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널따랗다'도 '넓다랗다'로 쓴다. 남에 비해서 북은 형태를 밝혀 적는 원칙을 좀더 엄격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더 파고들어가 보면, '널따랗다'(남)와 '넓다랗다'(북)로 표기가 갈라지게 된 근본 원인은 남북의 소리가 다르다는 점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넓다'의 남측 발음은 [널따]이고, 북측 발음은 [넙따]이다. 이 차이는 '-다랗-'가 붙은 말에서도 그대로 이어져서 남에서는 [널따라타]로 소리나지만 북에서는 [넙따라타]로 소리난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북에서는 도저히 '널따랗다'와 같은 표기가 나올 수 없게 된 것이다. 북의 관점에서는 [넙따라타]로 소리나는 말을 '널따랗다'로 적는 것은 형태를 밝혀 적는 것도, 소리대로 적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재밌는 것은 '넓적하다/넙적하다, 넓죽하다/넙죽하다'의 경우에는 양상이 반대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때는 '넓적하다, 넓죽하다'처럼 어간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것이 남의 규범이고, '넙적하다, 넙죽하다'처럼 소리대로 적는 것이 북의 규범이다.

> 운동장처럼 넓다랗고 평퍼짐한 더기우에 뛰여오른 아이들은 발을 구르며 만세를 목청껏 웨쳤다.(아버지가 섰던 자리, 북측 소설)
>
> 무엇에 얻어맞았는지 코마루가 **넙적하게** 주저앉아버린 덕대같이 생긴 사나이가 신음소리처럼 울부짖었다.(두만강지구, 북측 소설)

가느다랗다'(가늘-+-다랗다), '잗다랗다(잘-+-다랗다)'처럼 어간의 받침이 'ㄹ'로 끝나는 말이 '-다랗-'와 결합하게 되면 'ㄹ'이 탈락하거나 'ㄷ'으로 변한다.[2] 북도 그러하다. 그런데 북은 '길다랗다'와 '잘다랗다'도 함께 인정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표준국어대사전	조선말대사전
잗다랗다	꽤 잘다	보기에 무던히 잘다
잘다랗다	'잗다랗다'의 잘못	무던히 잘다

> 영희는 잘다란 자갈들이 고르롭게 깔려있는 교사뒤로 교장을 향해 급히 걸음을 옮겼다.(작별, 북한 소설)
>
> 깨알같이 잘다란 글씨로 박아쓰다.≪조선말대사전≫

이와 같이 남에서는 한 가지 표기만을 규범으로 삼은 경우가 많고, 북에서는 복수 표기를 인정하고 미세한 말맛의 차이를 보인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남에서는 '커다랗다'만 표준어인데 북에서는 '크다랗다'도 문화어이다. 남에서는 '길쭉하다'만 표준어지만, 북에서는 '길죽하다, 길쭉하다, 낄쭉하다' 모두 문화어이다.

'건너다'의 경우에도, 남에서는 '건너다'만 표준어이지만 북에서는 '건느다'도 인정한다. ≪조선말대사전≫에서는 '건느다'를 기본 올림말로 삼고 있다. 북에서는 '건너다'보다 '건느다'를 더 많이 쓴다는 뜻이다.

> **건느다** (건느니, 건너) 「동」(자,타) ① 어떤곳을 사이에 두고 그것을 거치거나 넘어서 맞은편으로 가거나 오다. ‖ 대양을 건느는 배. (중략) ③ (무엇을 거쳐서) 전하여지다. | 여러 사람의 입을 건느는 사이에 말은 자꾸만 보태여지고 엄청난데까지 이르렀다. (=)건너다. (이하 생략) ≪조선말대사전≫

흔히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서라]."라고 하지만 '[주워라]'가 맞다. 기본형이 '줍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는 남측에서만 적용되는 어법이다. ≪조선말대사전≫에는 이런 뜻의 '줍다'는 실리지도 않았다. 문화어로 인정되는 형태는 '줏다'이기 때문이다.[3] 그리고 이때 '줏다'는 시옷 불규칙 용언이다.[4] '줏다'가 어미 '-어라'를 만나면 '줏어라[주서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라'가 되고, 어미 '-은'을 만나면 '줏은[주슨]'이 아니라 '주은'이 된다는 뜻이다. 남에서는 비록 비표준어이지만 흔히 '[주서라], [주슨]'으로 발음하고 있다. 결국 남의 '줍다'와 '줏다', 북의 '줏다' 이 세 가지의 쓰임새가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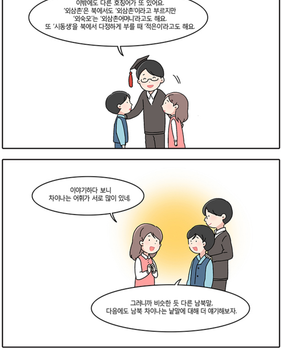
> **줏다** (주으니, 주어) [동](타) ① (바닥에 떨어지거나 흩어져있는것을) 집거나 집어서 들다. | 아영생들은 바다에 나가 조개를 줏기도 하고 굴을 따기도 했다. ② (남이 버리거나 잃은 물건을) 얻거나 집다. | 운동장에 떨어진 칼을 주어 선생님에게 바쳤다. (이하 생략) ≪조선말대사전≫

1) '참따랗다(=딴생각 없이 아주 진실되고 올바르다)'는 예외다. 북에서는 '참다랗다'로 쓴다.
2) '걸다랗다(=다른 물질과 섞인 액체가 물기가 적어 된 듯하다)'는 예외다.
3) '줏다'는 '줍다'의 옛말이다. 북에서는 옛말 형태 그대로 '줏다'를 쓰고 있는 셈이다.
*옛말 '줏다' 용례: 鹿母夫人이 새를 주ᅀᅥ 뒷 東山애 五百 塔ᄋᆞᆯ 이로고, ≪석보상절≫
4) '벗고, 벗는, 벗은, 벗어'에서 보듯이 '벗다'는 어떤 어미를 만나더라도 어간의 형태가 유지된다. 이처럼 용언의 어간은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짓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나면 '지은, 지어, 지으니'와 같이 어간 끝음절의 받침 'ㅅ'이 탈락한다. 이런 용언을 '시옷불규칙용언'이라 한다.

| 이대성 |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현재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남녘말 북녘말 결혼, 가족과 관련된 어휘의 남북 차이점 알아보기

Copyright©2013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
추천하기



남녘말 북녘말 남에서는 남편한 날편지를 좀고'... 보기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아현동) | 대표팩스 02-3275-0815 | 전화 02-3275-3715
Copyright©2013 어도비애니메이트 All Rights Reserved.
추천하기

| 뜻풀이 깁고 더하기 |

명사 〈악〉과 동사 〈악쓰다〉

_ 김수현 / 겨레말큰사전 선임연구원

관용구를 집필하다 보니 단어와 동사구, 이와 관련된 합성용언의 풀이를 사전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명사 <악>과 동사구 <악을 쓰다>, 합성용언 <악쓰다>에 대한 사전적 처리도 그 한 예이다. 북측에도 <관용구>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사전 편찬 현장에서는 <성구>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 북측의 <성구> 개념은 <관용구>보다 훨씬 넓은데 실제로 북측 사전에는 <연어>로 다룰 수 있는 표현들이 <성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관용구>와 <성구>의 구분, <관용구>와 <일반구>의 구분, <관용구>와 <연어>의 구분 문제는 사전 편찬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사전 편찬의 실제에서는 이 문제가 결코 녹록지 않은 골칫거리이다.

<악쓰다>는 ≪표준국어대사전≫을 비롯한 남측 국어사전에 모두 합성용언으로 올라 있지만, 북측의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성구 <악을 쓰다>로 올라 있다. 두 사전의 뜻풀이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준국어대사전(1999)	악1 [명사] 있는 힘을 다하여 모질게 마구 쓰는 기운.	악-쓰다 [동사] 악을 내어 소리를 지르거나 행동하다.
조선말대사전(2007)	악1 [명사] ① 몹시 기를 쓰며 나타내는 모진 기운. ② 모질게 일어나는 성. ③ 모질거나 독하게 먹는 마음.	악(을) 쓰다 [성구] 있는 힘을 다하여 기승스럽게 애쓰다.

한쪽에서는 합성용언으로 처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성구로 처리하고 있는 말을 ≪겨레말큰사전≫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악쓰다>와 같이 일음절 명사와 <쓰다>가 결합한 합성용언으로는 <힘쓰다, 손쓰다, 애쓰다, 꾀쓰다, 용쓰다> 등이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악쓰다>처럼 남측의 사전에만 합성용언으로 올라 있는데, <힘쓰다>는 ≪조선말대사전≫에서도 합성용언으로 올라 있다. 북측 사전에서 유일하게 <힘쓰다>만 합성용언으로 처리한 까닭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늘 한 단어처럼 붙여 쓰는 빈도가 높아 그리 처리한 게 아닌가 싶다. 실제로 북측 인용례를 보면 <일음절 명사+쓰다> 형을 대부분 붙여 쓰고 있는데 <애써서, 용쓰는, 떼써> 등이 그것이다. <악쓰다> 역시 <악쓰는 소리, 악쓰듯 부르짖다>로 나타난다. 물론 이를 <악 쓰는 소리, 악 쓰듯 부르짖다>와 같이 띄어 쓰고 <악을 쓰다>에서 조사가 생략된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선말대사전≫에서는 <손(을) 쓰다, 애(를) 쓰다, 용(을) 쓰다>의 예를 보듯이 조사를 괄호로 묶고는 있지만 이 조사를 생략하고 띄어쓰기한 예는 따로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성구 <악을 쓰다>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우선 <악을 쓰다>를 연어로 보고 명사 <악>의 인용례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넓은 의미의 관용구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후자의 방법은 재고가 필요하다. 북측에서 성구로 보고 있는 <꿈을 꾸다, 꾀를 부리다, 심술이 나다> 등을 선행 명사가 대체될 때마다 모두 짝 맞추어 관용구로 올릴 수도 없거니와 주표제어의 뜻풀이에서 보이는 예구나 인용례와 중복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결국, <악쓰다>처럼 일음절 명사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은 합성용언으로 간주하여 주표제어로 처리하고 <악을 쓰다>와 같은 연어 또는 일반구는 주표제어의 인용례로 보여주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물론 이에는 북측과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면 뜻풀이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을까? 위에서 제시했듯이 명사 <악>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있는 힘을 다하여 모질게 마구 쓰는 기운'으로 풀이하고 있고, ≪조선말대사전≫에서는 '① ~기운, ② ~성, ③ ~마음,'으로 나누어 풀이하고 있다.

단순하게 <악>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직관적으로 <아이가 악을 쓰며 울다>와 <힘든 상황에서 악으로 버티다> 정도가 그려진다. 전자는 <~소리 또는 기운>의 의미를 후자는 <~마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 명사 <악>의 풀이에 적용하고 동사 <악쓰다>에는 행동성의 의미를 추가하여 뜻풀이를 보완하면 어떨까 한다. 이를 정리하여 명사 <악1>과 동사 <악쓰다>를 수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악[1] [명]
① 기를 쓰며 사납고 독하게 내지르는 소리, 또는 거기에서 느껴지는 기운. ‖ 아이가 {악을} 쓰며 울다. | 그들은 돼지 멱따는 소리로 {악을} 쓰면서 군중을 해산시키려고 미쳐 날뛰였다.(≪질소비료공장≫) / 최 사장은 박산슈퍼를 향해 연방 삿대질을 해가며 고래고래 {악을} 써댔다. ≪김한수: 만년설≫
② 모질고 독한 마음. ‖ {악만} 남다. {악으로} 버티다. {악이} 나다. {악이} 치받쳐 오르다. | 노파는 … 칠십이 훨씬 넘은 나이지만 {악으로} 살아온 일생이라 그런지 강단은 있어보였다. ≪서동훈: 정교수의 어느 하루≫ / {악밖에} 남지 않은 그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몹시 두려운 배두천이 부랴부랴 그의 앞을 막아선다. ≪강효근: 바람은 가슴속에 멎는다≫(연)

악쓰다 [악써, 악쓰니] [동](자)
① 기를 쓰며 사납고 독하게 소리를 내지르다, 또는 그런 기운을 내뿜다. ‖ {악쓰는} 고함 소리. {악쓰며} 싸우다. {악쓰면서} 덤벼들다. | 개들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보자 {악쓰며} 짖어댔다. ≪리근전: 고난의 년대≫(연) / 이봐, 웨이터, 여기 맥주 더 줘." 길수는 밖을 향해 {악써} 외쳤다. ≪박범신: 물의 나라≫ / 현장에선 감독 놈들이 {악쓰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눈석이꽃≫)
② 모질고 독하게 마음먹고 악착같이 행동하다. | 가난에 치가 떨려 {악쓰며} 벌어온 돈, 그 돈이 갖다주는 것은 기막힌 현실이였다. ≪손룡호: 확인≫(연) / "매사를 순리대루 풀어야쥬. 장사란 게 {악써서} 되는 게 아니잖유." ≪김용만: 능수엄마≫

※ 이 글은 글쓴이의 견해로 ≪겨레말큰사전≫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Copyright©2013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

| 겨레말 소식 |

사전 전문가 초청 간담회 개최

사업회는 지난 3월 23일 해외의 주요 온라인 사전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고 ≪겨레말큰사전≫ 편찬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사전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배연경 선생님이 '해외 온라인 사전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해외의 온라인 사전의 특징과 편찬 흐름을 발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직원들은 "기술 발전에 따른 해외 온라인 사전들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으며, 향후 ≪겨레말 웹사전≫의 편찬 방향을 시대 흐름에 맞추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앞으로 사업회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도 높은 ≪겨레말 웹사전≫을 제작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 2017년 3월 23일 개최된 사전 전문가 초청 간담회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공덕동) | 대표전화 02-3275-0815 | 전송 02-3275-3715
Copyright©2013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
추천하기

| 겨레말 소식 |

제34차 정기 이사회 개최

지난 2월 15일 제34차 정기 이사회가 열렸다. 고은 이사장 등 6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번 이사회에서는 '2017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 결정 내역'과 '공인회계 검사 결과', '노사협의회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안건으로는 '2016년도 결산서'와 '규정 개정안'이 상정되어 승인되었다. 또한 '제5기 남측편찬위원회 위원 위촉안'도 상정되어 홍종선, 김재용, 김창섭, 유현경, 정희원, 정희창, 조남호, 한용운, 김강출, 이길재, 임보선 등 11명이 편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 2017년 2월 15일 개최된 제34차 정기 이사회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공덕동) | 대표전화 02-3275-0815 | 전송 02-3275-3715
Copyright©2013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
추천하기

사업회 정기 감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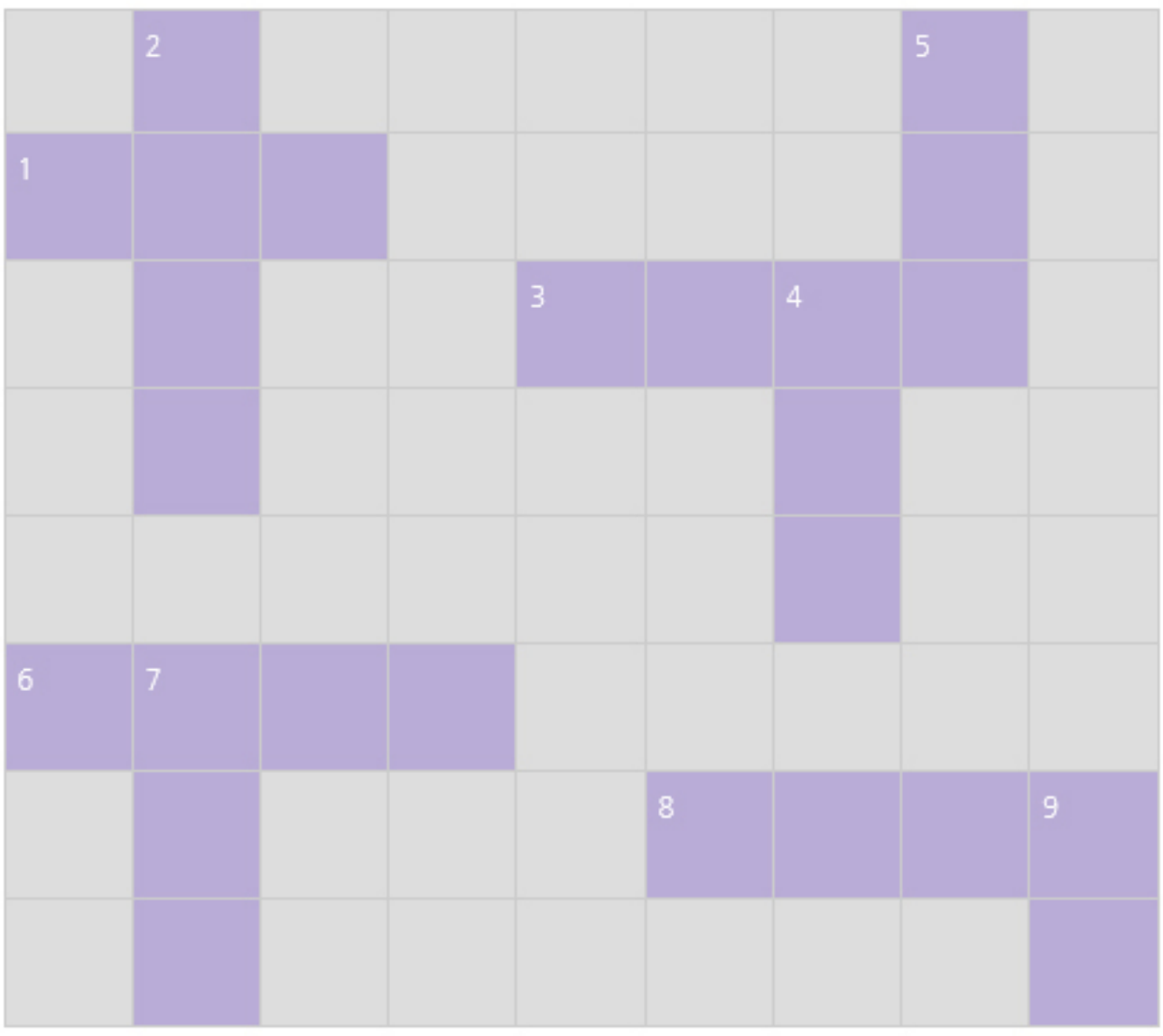
사업회는 지난 2월 2일부터 3일까지 정기 감사와 공인회계 검사를 받았다. '2016년 사업회 운영'과 관련하여 곽병채 상임감사가 사업회 운영 현황 및 사업 추진 실적, 재무제표, 기금집행현황 등 사업회의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았다.

또한 이상훈 공인회계사(세한세무회계사무소)는 <2016년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사업회 재정운영의 전반적인 현황을 검사하였다. 공인회계사의 검토 결과, 사업회의 <2016년 결산 보고>는 회계기준 및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재무상태와 운영성과가 모두 적정하게 표시되고 있음을 확인 받았다.

앞으로도 사업회는 투명한 사업회 운영과 함께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공덕동) | 대표전화 02-3275-0815 | 전송 02-3275-3715
Copyright©2013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
추천하기

| 겨레말 낱말 풀이 |



① '출입문'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사람들이 나드는 문."을 뜻한다.
예) 꽁꽁 닫아걸고 빗장을 든든히 지르고 있을 줄 알았던 대문에 달린 작은 ○○○도 제멋대로 열려져 있었다. ≪415 문학창작단: 압록강≫

② 북에서 '염색'을 다듬은 말로, "물감으로 재료들에 색을 나타내게 하는 것 또는 그 방법."을 뜻한다.
예) 비날론의 일부 부족점은 ○○○○에서 진하고 선명하게 잘 물들여지지 않으며 튐성이 작아 옷을 입을 때 구김이 가는 것이 있으나 최근에 비날론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통하여 물들임성, 튐성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방태근: 비날론과 그 리용, 천리마(2)≫

③ '넓적다리'의 북녘 표기. "다리의 무릎마디 우의 부분."을 뜻한다.
예) ○○○○까지 빠지는 물을 주저 없이 건넜다. ≪415문학창작단: 두만강지구≫

④ 북에서 '운행표'를 다듬은 말로, "기차나 자동차 같은 것의 운행 조직과 시간 등을 적어놓은 표."를 뜻한다. 렬차 ○○○.

⑤ '입덧'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 "임신한 초기에 입맛이 떨어지고 몹시 메스껍고 토하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증세."를 뜻한다.
예) 리씨도 들에 나갔고 봉임이도 ○○○를 하느라고 볼에 큼직하게 검버섯이 돋은 몸으로 들일을 놓지 않았다. ≪시대의 탄생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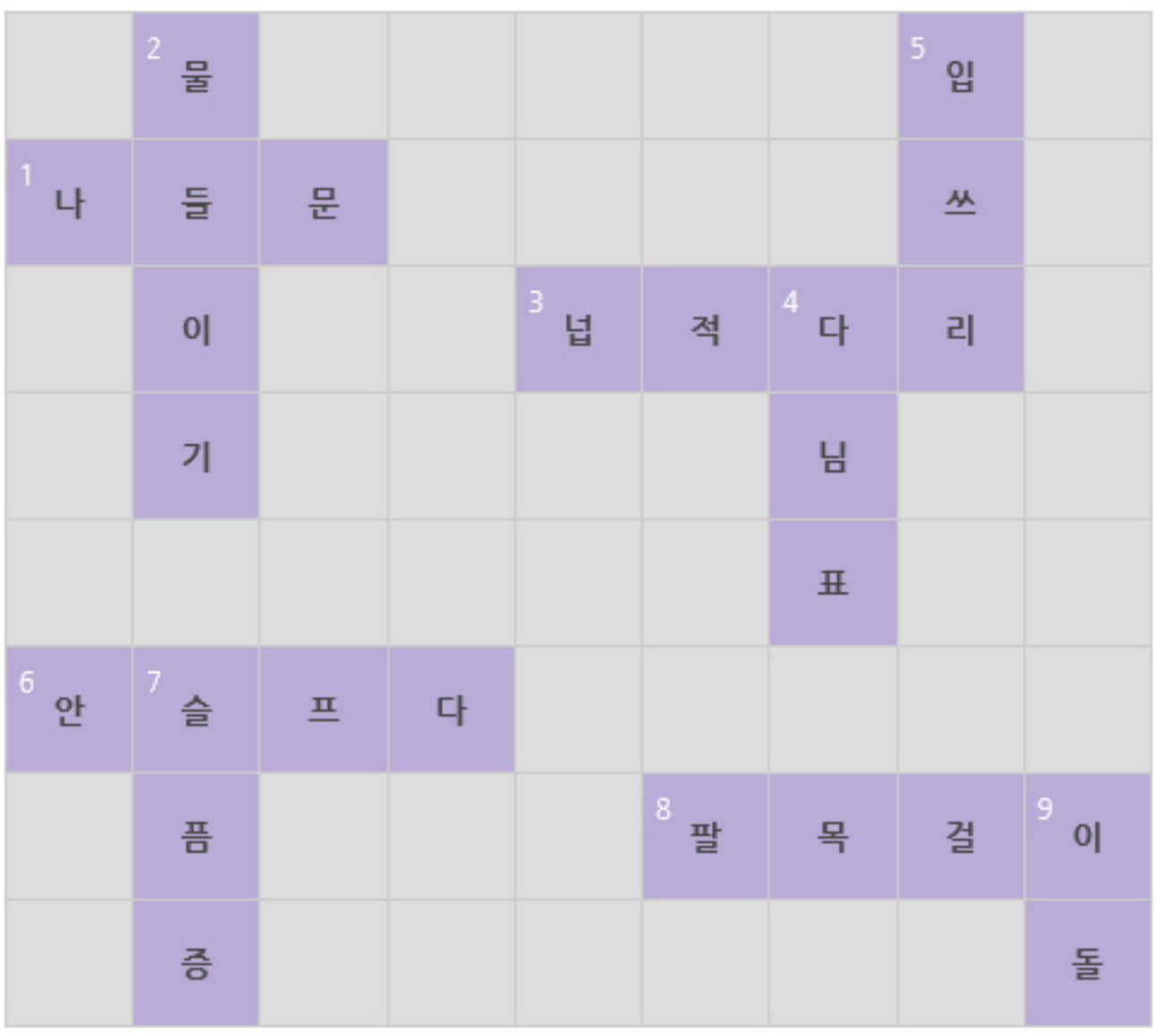
⑥ '안쓰럽다'의 뜻으로 쓰이는 북녘말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나 아래 사람에게) 폐를 끼치여 매우 미안하고 딱한 데가 있다."를 뜻한다. 동의어는 안스럽다. 안○○○.

⑦ 북에서 '우울증'을 다듬은 말로, "마음이 우울해지고 공연히 슬퍼지는 증세."를 뜻한다. ○○증.

⑧ '팔찌'의 동의어로 쓰이는 북녘말. "주로 녀자들이 팔목에 끼는 고리로 된 장식품."을 뜻한다. 동의어 팔가락지. ○○○○을 차다.

⑨ 북에서 '치석'을 다듬은 말로, "음식에 섞였던 석회분이 이의 안팎이나 틈에 굳어붙은 단단한 물질."을 뜻한다.
예) 이닦기를 정상적으로 해야 ○○ 및 기타 침착물들 그리고 이발짬이나 오목이에 끼여있는 음식물찌끼들과 세균들을 없애고 입안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리수복: 이삭기를 미리막자면≫

정답확인 >



04212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공덕동) | 대표전화 02-3275-0815 | 전송 02-3275-3715
Copyright©2013 GYEOREMAL All Rights Reserved.
추천하기